문홍철의 Concise

채권/FX

26. 01. 05

신(新)먼로주의에 따른 전쟁경제

- 베네수엘라 무력개입, 미국의 고립주의 강화와 세계적 전시경제를 의미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성장기회손실을 의미, 이는 디플레적
- 중국의 수출 올인으로 미국채 수요는 견조, 금과 유사한 지정학 자산이 각광 받을 것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과 식민지화를 배격하고, 미국과 유럽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 미국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James Monroe, 1823) –

베네수엘라 무력개입, 미국의 고립주의 강화와 세계적 전시경제를 의미: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무력 개입한 근본 원인은 남미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있다. 석유나 마약은 부수적 효과이거나 명분이다. 미국은 먼로주의에 입각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적대세력의 확장을 배격해 나갈 것이며 이는 파나마 운하 운영권 개입, 아르헨티나 정권 지원, 브라질 좌파 정권 압박 등에서 보여주었다. 이를 개입주의로 오해해서는 안되며 정반대로 적극적 고립주의의 발로이다. 남미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 제거에 성공한다면 그 다음, 미국은 태평양 전선에서 도련선(island chain)을 매개로 한 지정학적 거부라인을 명확화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서쪽 전략이다. 미국의 동쪽인 동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정상 국가로 편입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는 50년 전 '닉슨–키신저'가 이룬 위대한 외교 승리인 중국을 이용한 소련 압박에서 이미 보여줬다. 일련의 사건은 지난 12월 발표된 미국의 NSS전략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임박한 현안으로서 즉각 실행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전략임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전시경제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는 경제와 자산 시장에 지대한 테마가 될 것이다.

세계 경제와 자산시장의 영향: 전시경제는 자원의 비효율적 할당을 의미한다. 효율보다는 안보가 우선시되므로 경제 성장에 기회손실이 나타난다. 경제를 인본주의로 바라볼 때 이는 비용 상승에 따른 비효율 증가, 결국 디플레 압력을 의미한다. 미국의 전략게임에 중국은 전시 제조업 및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주변국 지배력 강화로 응수할 것이다. 중국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쟁 수행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내수 부양은 제한적으로만 나선다. 이에 따른 잉여산출품은 남미의 석유 증산과 맞물려 전세계로 디플레를 수출한다. 관세 등의 무역블록화는 지난 1년간 경험했듯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인간의 경제활동 욕구를 꺾어 성장과 물가를 하락시킨다. 군사비 지출이 국가 부채 우려를 높여 간헐적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저성장 압력이 강하므로 금리 상승이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듯 전쟁 전까지는 디플레 압력이 누적될 것이다. 중국의 내수 부진 + 제조업 수출 올인 경제는 그 반대급부로서 숨겨진 경로를 활용한 미국채 매입 증가를 가져온다. 지정학 위협에서 각자도생을 도울 수 있는 금과 비슷한 성격의 자산이 각광받을 것이다. 전쟁 전에 찾아올 저성장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자.

Analyst 문홍철 02 369 3436 m304050@dbsec.co.kr

도표 1. 먼로 독트린 이후 200년 이상 지났지만 건국의 철학은 바뀌지 않았다. 북미, 남미 대륙은 미국의 최우선 이해관계지로서 적대 세력의 간섭을 배격한다. 동시에 아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경계로 하는 미국의 고립을 강화하는 선언이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태생적 철학과 이질적인 개입주의적 전후 체제를 뒤집는 데 있어서 먼로주의는 철학적으로 가장 참고할 만한 선언이다.

자료:Wikipedia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